

아오모리 네부타 마쓰리의 개요

네부타 마쓰리는 아오모리현의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북쪽 도시의 짧은 여름의 끝을 상징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현지주민과 지역사업자가 주최자인 네부타 마쓰리 실행위원회는 여러 달에 걸쳐 준비를 합니다. 축제날이 다가오면 아오모리시 전체가 흥분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네부타 마쓰리는 센다이 다나바타 마쓰리, 아키타 간토 마쓰리와 함께 8월에 개최되는 도호쿠 지역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축제기간 동안에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네부타 (축제용 장식수레)는 이 축제의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불이 켜진 거대한 등롱의 대부분은 역사적 사건이나 일본 고유의 연극인 가부키의 1막을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3km의 행렬을 따라가며 네부타를 밀고, 현지인과 국내외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길가에 앉아 그 행렬을 구경합니다. 행렬에서는 하네토(跳人)라고 불리는 춤꾼이 '랏세라'라는 구호와 함께 춤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주위에는 북과 시노부예(대나무 피리), 데부리가네(손바닥 크기의 심벌즈)를 연주하는 오하야시슈(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가 하네토의 기분을 고조시킵니다.

네부타 마쓰리의 기원은 다나바타 마쓰리와 네부타나가시라고 불리는 아오모리의 민속행사가 합쳐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사람들은 이 행사 때 강이나 바다에 등롱을 띄웠습니다. 현재 네부타 마쓰리의 네부타는 여기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의 거대한 네부타는 1945년 이후에 정착된 것이며, 네부타 마쓰리는 1980년에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는 그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라는 관점에서 네부타 마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6일 동안 진행되며, 야간 네부타 운행은 8월 2일에서 6일까지 오후 7시부터 개최됩니다. 6일에는 모든 대형 네부타가 총출동합니다. 마지막 날인 8월 7일은 오후 1시부터 주간 네부타 운행이 시작되고, 그 해 최고의 네부타가 등장하는 야간 해상 운행과 불꽃놀이로 축제가 마무리됩니다. 6일간 펼쳐지는 축제에 앞서서는

8 월 1 일에 네부타를 조립하는 '네부타 랫세란도'에서 네부타 마쓰리 전야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현장에는 포장마차가 늘어서고, 오하야시(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음악) 이벤트가 개최되며, 그 밖에도 완성된 네부타에 등불을 밝혀 관중들에게 선보입니다.